

2014 SPRING Vol. 21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박물관풍경 風景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展을 기대하며

글·견수찬 (인천광역시 중구청 학예사)

오늘날의 월미도는 바다와 카페, 음식점, 유원지가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과 휴식을 자아내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어떤 이는 수도권에서 흔히 많은 바다의 정경을 찾아 이곳을 찾고, 어떤 이는 일행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월미도를 찾으며, 오랜 추억에 이끌려 이곳을 다시 찾는 이도 적지 않다. 어느새 ‘월미도’는 인천시민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월미도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인천상륙작전의 첫 상륙 지점으로 20세기 전쟁사의 한 페이지 속에 기억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월미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 많지 않다.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월미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여러 테마로 준비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 – 행궁 – 열강의 조차지 – 유원지 – 전쟁터 – 관광지 …… . 오랜 세월동안 바뀌어 온 월미도의 ‘운명’이었다. 이런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월미도의 곡절 많은 과거사는 격변기 한국의 역사를 집약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특별전을 주목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은 섬 월미도가 겪어낸 세월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월미도의 지명유래

‘월미도(月尾島)’라는 현재의 지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부터가 주요한 관심사이다. 일반적으로는 섬의 형태가 ‘달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월미도(月尾島)’라고 칭해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 고문헌에는 ‘월성(月星)’, ‘월미도(湄尾島)’, ‘월도(湄島)’, ‘어을미도(於乙味島)’ 등 월미도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이 등장한다. 고지도

등 전시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지명유래를 탐구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첫 번째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월미도에 행궁을 설치한 까닭은?

‘행궁(行宮)’이란 임금이 지방 행차시에 머무는 거소를 뜻하는데, 조선 시대의 여러 문헌에는 1656년(효종 7)에 월미도에 행궁을 처음 건립한 후 오랫동안 이를 유지·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과 가깝고 특별히 왕이 찾아볼 능원도 없는 제물포 앞바다의 한적한 섬에 왕이 머무를 행궁을 건립하게 된 사연을 통해 조선 중기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방체제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도 이번 전시의 주요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발굴조사까지 마쳤지만 행궁 터의 위치를 두고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전시에서 어떤 견해와 자료가 제시될지 자못 궁금하다.

개항기의 월미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개항 후 우리나라에 진출한 열강들은 저마다 인천항 곁의 월미도에 자국 함대를 위한 저탄고를 설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과거 행궁 터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외교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교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유원지화되기 전 월미도의 모습과 생활상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러·일해전과 같이 월미도 연해에서 발생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개항기에 서구 열강이 왜 월미도를 주목하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미도가 관광지로 변모하게 된 연유는?

지금처럼 월미도가 ‘관광지’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17년 월미도와 북성동을 연결하는 제방이 축조되어 육지와외의 통행이 자유로워진 이후의 일이다. 일제는 월미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활용해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1918년에 인천부에서 월미도를 풍치지구로 지정한 후 관상용 수목이 식재되고 북성동과 연결된 제방에 도로를 놓는 등 월미도는 점차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빼어난 풍광 외에도 해수욕장, 운동장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월미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점차 변모해 갔고 이를 맡아 경영하는 유원회사가 설립되면서 월미도의 관광지화는 가속화 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 제시될 각

종 자료들을 통해 월미도가 관광지로 주목받게 된 원인과 그 의미를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도 오늘날 월미도의 연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월미도 유원지는 어떤 곳이었나?

관광지로 개발된 이후 월미도에는 조탕과 호텔, 임해학교, 해수욕장 등 대규모의 관광시설이 마련되어 전국 각지에서 철도편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포화로 모두 멸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은 당시에 판매된 관광기념 사진엽서 같은 몇몇 자료를 통해서만 유원지로 성가를 올리던 월미도 유원지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자료의 종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진엽서와 기념품, 지도를 통해 호화롭던 월미도 유원지의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주요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때 월미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국전쟁 전·후의 지형도를 비교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쟁 전에 비해 현재 월미산의 표고가 2~4m가량 낮아졌다고 한다. 이는 인천상륙작전을 겪으며 연합국의 첫 상륙지점이 된 월미도에 엄청난 포화가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호화로운 유원지로 명성을 날리던 월미도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쟁터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연합군 자료와 노획된 북한군 자료 등 새로운 자료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전투의 실상을 소상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COVER STORY



기억의 지층 속에 묻힌 장군바위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이는 세상일의 변천이 심하면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다. 인천 연안 일대의 섬과 바다들은 개발의 열기로 신도시와 공항 등으로 거듭 변모되었으니 ‘벽해상전(碧海桑田)’이 된 셈이다. 왜적들로부터 용유도를 지켜주던 비포장군(飛浦將軍)바위의 사치하지 않고 누추하지 않았던 전설 또한 급격히 변화된 바닷가의 모습에 역사의 지층 속으로 묻혀 지고 서해를 지켰던 당당한 위용의 수호신에서 이제는 공항매립지의 망부석으로 쓸쓸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Contents 2014 SPRING Vol. 21

02 전시프리뷰	「월미도」 특별전
04 전시리뷰	「안녕하세요, 배다리」 특별전
06 기획기사 I	근대 산업의 발전과 디자인
08 기획기사 II	月尾島 行宮의 재조명
09 인천, 도시탐사	시간을 달리는 공간
10 학술조사	유물관리부 사업소개
12 청소년기획	간판, 인천
14 박물관 소식	전시, 행사, 교육
16 소장유물	세창양행 상표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명숙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명숙 정효숙 정경수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웅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번지)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기획특별전

「안녕하세요, 배다리」 리뷰 글·김래영 (전시교육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2013년부터 인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의 역사적 특징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해마다 기획전시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전시가 〈안녕하세요, 배다리〉기획특별전(2013.12.3~2014.2.2)이다. 근대 이후 배다리라는 공간을 이어온 삶의 흔적과 현재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보존 사이의 갈등이 안녕하면서도 그다지 안녕하지 못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배다리를 연작전시의 첫 번째 공간으로 선택한 이유이다.

마을축제에 참가하다

배다리 전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우연히 배다리에서 마을축제(BOOK語국, 2013.6.1~6.2)개최 소식을 들었다. 배다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고자 배다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열리는 마을축제로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번 기회에 배다리 사람들도 만나보고, 전시에 활용할 인터뷰 영상과 실물자료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축제에 참가하였다. 배다리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어린이들을 위한 미션게임, 그림이어그리기 등을 진행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배다리 전시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고, 배다리 사람들과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한층 배다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전시구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배다리에 묻는다

전시준비에 앞서 세 번의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배다리 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다리에 대한 추억과 견해를 물어봤고, 길거리의 행인들에게 배다리의 범위와 지명유래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또 사전협의를 거쳐 배다리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 배다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다리 개발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를 밝힌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인터뷰를 통해 배다리가 어떤 곳인지, 배다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천 사람들에게 배다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렵듯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추억을 통해서 과거의 배다리를 만났고, 현재 배다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재개발과 산업도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인터뷰 자료들은 전시의 도입부에 공간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줬고, 안녕한 배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통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전시의 마지막에 활용하였다.

배다리를 전시하다

전시구성을 위해 배다리와 연관된 키워드를 찾기 시작했다. 배다리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고 그것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키워드마다 공통적인 주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주제마다 하나의 전시로 엮어 나가기엔 억지스러운 것들이 많았다. 배다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골라놓은 키워드들을 하나의 전시로 엮어내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그 결과 ‘공간’, ‘길’,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공간’에서는 근대부터 번영기까지의 배다리의 역사를, ‘길’부분에서는 배다리의 번영과 쇠퇴의 모습을 짜리재 라사의 양장과 쇠뿔고개 현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 ‘사람’에서는 배다리를 대표하는 다섯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하루를 사진으로 전시하였고, 산업도로를 통해 양분된 배다리 사람들의 모습을 전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다리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었고, 배다리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배다리 재개발 논란 등을 담아낼 수 있었다.

전시내용에 적합한 유물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다리 일대를 두루 다니며 34곳에서 380여 건의 유물을 대여하였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중앙시장에서 한복감과 라사 소품들을 구입하였고, 고물상에서 연출용 양장을 어렵게 찾아내었다. 배다리 여기저기를 다니며 전시에 필요한 것들은 주워오기도 하고, 현존하지 않는 것들은 재현기법을 활용하였다. 그중, 배다리 산업도로 반대피켓은 배다리 산업도로를 주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서 개발을 찬성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현수막은 실제 시청 앞에 붙어 있던 것을 재현한 것이다.

전체적인 전시디자인은 폐자재인 파레트를 사용한 업사이클(Up+Recycle) 전시를 지향하였다. 이것은 배다리가 다시 더 안녕해지기를 바라는 전시 주제와도 부합되었다. 파레트로 마감한 전시실 벽면과 한지 도배를 한 진열장 등은 배다리의 전체적인 느낌과 상호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시의 세 번째 테마에서는 붉은벽돌, 스테인칠을 한 검정파레트, 웬스터널, 어두운 조명을 통해 평이하고 밝게 흘러가던 근대부터 1960년대 배다리의 모습과는 상반된 현재의 모습을 다이나믹하게 표현하여 전시주제와 기획의도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몇 차례 논의 끝에 배다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들 중 스페이스빔, 마을사진관 다행, 달이네와 함께 마을전시를 열게 되었다. 박물관 전시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배다리의 현재 모습과 각각의 공간 특성에 맞춰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또 전시내용 중 현재 배다리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작업은 사진공간 배다리와 함께하였다. 사진공간 배다리에 소속되어 있는 다섯 작가가 다섯 개의 테마 중 하나를 선정하여 3주 동안 작업을 하였다. 다섯 개의 테마가 다섯 명의 작가 나름의 해석으로 다섯 개의 독특한 색깔을 내며 표현되었다. 그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하였고, 주제를 확장하여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도 일주일 동안 6개의 테마가 릴레이로 전시되었다.

마을전시를 통해 박물관에서 보여줄 수 없는 현재 배다리의 모습과 배다리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기회가 되었고, 배다리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준비기간이 짧아 더 많은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시가 끝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배다리 전시가 개막하였다. 테마를 결정하면서부터 전시의 준비까지 그 어떤 전시보다도 고민과 생각이 필요했던 전시였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기획의도가 관람객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와중에 글로 표현할 순 없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고, 그렇기에 포기한 것들도 많았다. 보여주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것들은 많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아쉬움 또한 많이 남는 전시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고, 생각지도 못한 호평 속에 전시를 끝낼 수 있었다. 끝으로 안녕한 배다리를 기원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유물을 대여해주신 배다리 주민들, 마을전시 관계자, 사진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세창양행 - 상표

근대산업의 요람 인천과 디자인

글·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한국의 근대화는 인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목포나 부산도 자의만 타의반에 의해 개항을 하면서 근대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오늘날의 인천은 130여 년 전부터 이미 '제물포(Chemulpo)'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문물과 제도가 쇄도하면서 인천은 이미 각국의 진귀하고 새로운 문물로 가득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인천 개항 이후 유럽과 일본, 중국인들은 인천에 들어와 자신들만의 조계지를 확보했다. 이때 이들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규정한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도로와 주택지, 공원 등을 구획하는 도시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했다. 1888년에는 응봉산에 일명 만국공원이라 불리는 한국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각국공원'이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Sabatini)의 디자인으로 조성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들의 세가 더욱 커지면서 인천에 상륙한 외국인 특히 유럽과 중국인들의 입지가 좁아졌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이들은 인천에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건축물들을 세웠다.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세창양행사택, 대불호텔, 공화춘, 1897년 건립된 담동성당이나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때 없어진 존스톤 별장이나 헨켈주택, 타운센트 방앗간, 제물포구락부 등 당시 유럽이나 일본에서 유행하던 건축양식들을 취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기와집이나 초가집 일생이던 제물포, 인천의 풍경을 바꾸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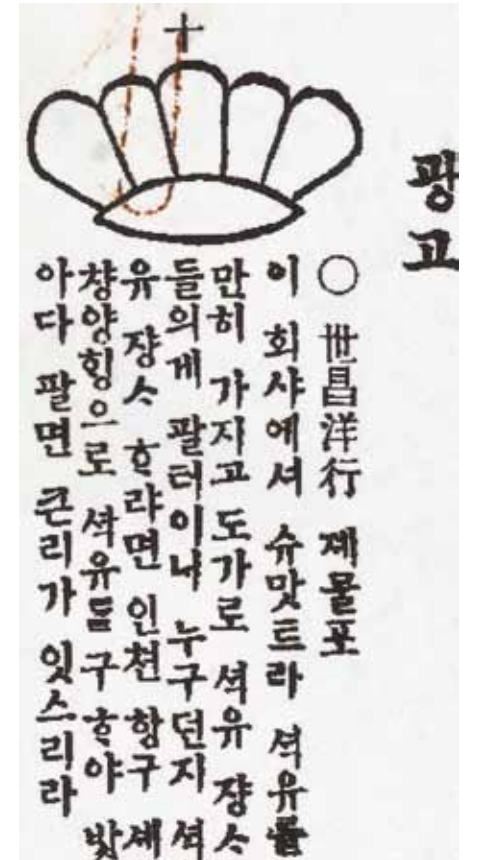
한국근대기 인천은 최고의 비즈니스 타운이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속속 들어와 문을 열고 사업을 개시했다. 그 중에서도 발군의 역할을 한 곳은 독일인이 세운 세창양행이었다. 잡화상 또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바늘에서 담배, 약품과 석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고 팔았다. 은행과 해운 등 선박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방패모양에 '세창'이라는 한자로 마크를 만들어 사용했고 한국 최초의 근대광고인 '고백' 광고를 한성주보 4호(1886. 2. 22)에 실었다. 물론 이 광고는 기사형식으로 시각디자인의 개념이 배제된 광고였지만 이후 스마트라 석유를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광고에서 시각적으로 왕관을 디자인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로고나 마크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후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하면서 시각디자인으로서의 광고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천은 한국의 근대화를 견인한 도시답게 새로운 생활품 공장들이 어느 도시보다 일찍 발달했고 당연하게도 요즘의 개념과 이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의장'이라는 디자인적 요소도 중하게 여겼다. 인천을 이야기하다보면 속요에 등장하는 성냥공장과 인천 앞바다에 떠다녔다는 사이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인천은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였다. 개항과 함께 부식들을 대체하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과 일제 성냥이 밀려들어왔고 이내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1885년 고종 때 외교고문인 뮐렌도로프의 주선으로 독일계 미국인 조셉 로젠바움이 서울에 성냥공장을 세워 처음으로 성냥을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1886년 제물포에 외국인들이 성냥공장을 세웠으나 일제에 밀려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기록이 남아 있는 최초의 성냥공장은 1917년 10월 4일 인천 동구 금곡동에 세워진 "조선인촌주식회사"이다. 일본인 가래영태랑(加來營太郎)이 사장이던 이 회사는 압록강 하류 신의주에 부속 제재소를 두고 목재를 배편으로 들여올 정도로 성했던 모양이다. 신의주와 평양에도 공장을 두었던 이 회사는 동맹파업 등 노동운동을 통한 항일운동의 거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1921년 통계에 의하면 총 550명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동포를 사랑하면 수입 성냥 대신 조선제품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인천의 조선성냥공장에서는 패동, 우룩표, 쌍원표 등의 상표로 국내 소비량의 약 20%를 점하는 하루 2만7000갑을 생산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매우 귀한 생활필수품이었던 성냥에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유치(?)하지만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혔다. 불을 연상시키는 붉은 바탕에 지구를 상징하는 두 개의 원에 조선이라는 글자를 각각 넣은 디자인이었다. 또 각 상표별로 디자인을 달리하여 차별화를 꾀했다.

사이다의 역사도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다는 속요가 등장하게 된다. 처음에는 요코하마에서 생산된 '삼페인 사이다'가 들어왔다. 이후 1905년 2월 일본인 히라이야마 나쓰타는 미국식 제조기와 50마력짜리 발동기를 들여와 인천 신흥동1가 8번지, 해광사 근처에 '인천탄산수 제조소'라는 사이다 공장을 열었다. 이곳에서 그는 '별표사이다'와 '일생표 사이다'를 제조 판매하였다. 당시 사이다는 톡 쏘는 맛에 트림이 나는 신기하고 새로운 문물이자 귀한 음료수였다. 이렇게 일상용품들의 생산이 계속되면서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등이 성하면서 의장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세창양행이 이어 영국의 이화양행, 미국의 타운선상회, 영국계의 광창양행과 함능가양행이 들어왔다. 이들은 자사의 제품을 신문들에 광고하면서 시각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했다. 이렇듯 한국의 디자인이란 개념은 상품의 광고로부터 비롯되었고 새로운 문물의 집산지이자 생산지였던 인천에서 짙어졌다.



세창양행 - 석유광고



리빅 - 화장품광고

되새겨 보는 '월미 행궁'

글·김락기 (강화고려역사재단 연구위원)

벌써 10년이 넘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초에 인천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 월미도의 서북쪽, 옛 일본 해군 석탄고가 있던 곳에 행궁이 있었다는 인하대 박물관의 주장에 대해 월미산 정상(104m) 동남쪽 해발 30m 지점에 있었다는 일부 향토사학자의 주장이 부딪힌 조선시대 행궁의 위치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仁川地圖』(江華府篇)의 1-2 '仁川府濟物浦圖形'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奎26233)의 월미도와 행궁



일본 해군 석탄고(甲'지'역)가 그려진 지도 (검은 선은 월미도 일주도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위치 비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월미도의 서북쪽에 행궁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로 월미도에 국왕의 임시거처인 행궁을 설치한 것일까?

월미도에 행궁이 설치된 경과는 『비변사등록』 숙종 21년(1695) 3월 4일자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효종 7년(1656)에 홍명하(1608~1668)의 건의로 처음 건립되었다가 1695년에 중건했다고 한다. 그리고 건립 당시 행궁은 일종의 관사였고, 목적은 병자호란 때처럼 김포에서 강화로 들어가는 길이 외적에게 막힐 경우나 때가 겨울철이어서 얼음이 많아 강화의 갑곶 나루를 건널 수 없게 될 경우, 우회로로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를 거쳐 강화도로 들어가는 도중에 국왕 일행이 잠시 머무는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국왕이 피난 도중에 월미도에 잠시 머물러는 이유는 물때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 앞바다는 잘 알려졌듯이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갯벌이 길게 드러나 배를 가깝게 댈 수 없을 경우에는 썰물이 들어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왕 일행이 인천을 출발하여 그대로 영종도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구태여 월미도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다. 국왕 일행의 목적은 영종도를 거쳐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산을 올라가야 하는 월미산 동남쪽 산록에 행궁을 두었다는 것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월미 행궁'의 규모는 『여지도서』 「영종방영도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중심건물인 정전이 여덟 칸이고, 부속건물인 동쪽과 서쪽의 월랑이 각각 네 칸, 남쪽 월랑이 일곱 칸이며, 건물 관리동인 수직간이 세 칸이며 그밖에 내중문과 외중문이 각각 한 칸으로 모두 스물여덟칸짜리였다고 한다.

외적의 침입시 국왕의 안전한 피난길을 위해 만들어진 월미 행궁은 한번도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한 채 청나라와의 관계가 안정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렇게 잊혀진 행궁은 일본이 조선 침략의 방편을

모색하던 19세기 말 양국 정부간의 조차지 문제로 다시 등장한다. 1888년 양력 5월 7일에 일본 공사 콘도오 모토스케(近藤真鋤)가 1885년 일본 해군용 석탄고를 지은 곳에 대한 임차료의 책정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는데, 조선 정부는 임차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임차 협정도 없이 함부로 일본이 석탄 창고를 지은 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고 처벌을 요구할 사안이니 조사해서 회답을 달라는 답변을 1890년 양력 7월 19일에 보냈다. 이런 답변의 근거는 월미도에 사는 공원 김영득이란 사람의 진술인데, 그이는 '일본이 해군용 석탄고를 지은 곳이 바로 옛날 행궁 자리인데, 그 터를 일본 영사관에서 헐값에 사들이려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행궁이 있던 중요한 자리이니 팔 수 없다고 하였다'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 1888년 2월 22일에 당시 일본의 인천항 영사였던 영목충미가 본국의 외무차관에게 보낸 문서 속에, "석탄고 부지 차입에 대해 양국 정부간에 확실한 조약이 없기 때문에 부근에 돌담 같은 것을 쌓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창고에 접근하여 부속물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피해가 가끔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조선 정부의 승인 없이 일본이 임의로 석탄창고를 월미도에 지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국왕이 머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름뿐인 행궁일지도 모르지만,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대응책과 일본의 불법적인 군사시설 설치에 반감을 가졌던 평범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월미 행궁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전해지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지금 행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가 보면 커다란 배 한척이 자리 잡고 있다. 처음 설치된 때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시점, 이미 퇴락하여 터만 남은 상황에서도 월미도 사람들은 행궁의 의미를 기억하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반감을 표현했는데, 다시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은 행궁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용현동 구와노별장 창고

글·홍현도 (유물관리부)

인천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창고가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개항장의 창고 대부분은 규모가 크고 단층이지만 일반 건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편으로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지어졌다. 이러한 것들 대부분은 운수회사에서 짓고 운영하는 것이었다.

용현동에는 개항장의 창고와 규모 및 짓는 방식이 다른 창고가 남아 있다. 용현2동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창고는 하얀 외벽에 개항장의 창고보다 작은 규모로 일본식 기와가 올려져 있다. 이러한 창고는 일본에서 도쥬(土蔵: 토사)라 불리는 일본 전통 창고로 개인 창고나 상점 용도로 지어졌다. 창고 내부는 2층으로 흙으로 지은 후, 외벽을 회반죽으로 30cm 이상 두껍게 마감하여 화재에 대비하였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산 발산리 창고, 일명 시마타니 금고가 있으나,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일본 전통 창고가 어떻게 용현동에 남아있게 된 것일까?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창고가 있던 곳은 구와노라는 일본인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별장 인근에 구와노 소유의 논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와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1911년에 발행된 『병합후의 인천(併合後の仁川)』의 기록에 조선산수이



1 구와노별장 창고 2 일제강점기 해안정의 창고
3 1947년 구와노별장 일대 4 용현2동주민센터와 창고

출상(朝鮮産輸移出商)인 구와노 료타로(桑野良太郎)가 등장한다. 료타로는 인천미두취인소와도 관련되는데, 그는 1920년 인천미두취인소 간부의 횡령배임사건인 의옥사건(疑獄事件)에 연루 되었으며, 이듬해 그의 아들인 구와노 켄지(桑野健治)는 미두취인소 취인원이 되고, 이후 미두취인소의 부위원장을 지냈다.

흥미롭게도 구와노 집안과 미두취인소는 창고가 위치한 용현동과도 연관되는데, 료타로는 1912년 용현동의 가교공사에 20원을 기부하여 총독부로부터 목배(木枓)를 하사 받았으며, 1930년 발행된 『경성, 인천 전화번호부』에서는 용현동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두취인소는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 4개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 3개의 주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안동 1가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1개의 전화번호의 주소는 현재 창고가 있는 용현동 547번지로 되어 있다.

이렇듯 구와노 집안과 미두취인소는 밀접한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 인천미두취인소가 사라진 1930년대 말 용현동 547번지는 구와노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구와노는 이곳에 별장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1947년 항공사진에서 나무로 둘러싸인 잘 가꾸진 정원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별장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창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창고는 별장의 부속 건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구야노가 떠난 별장 건물들은 창고와 함께 적산가옥으로 분류되어 국가에 귀속되고, 이후 관공서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1967년 용현2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별장의 건물은 철거되고, 창고만이 문서고의 역할로 남겨졌다.

용현동의 구와노 별장 창고는 비록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지만 인천에서 보기 드문 개인용 창고로 인천과 용현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박물관의 유물구입

글·허윤현 (유물관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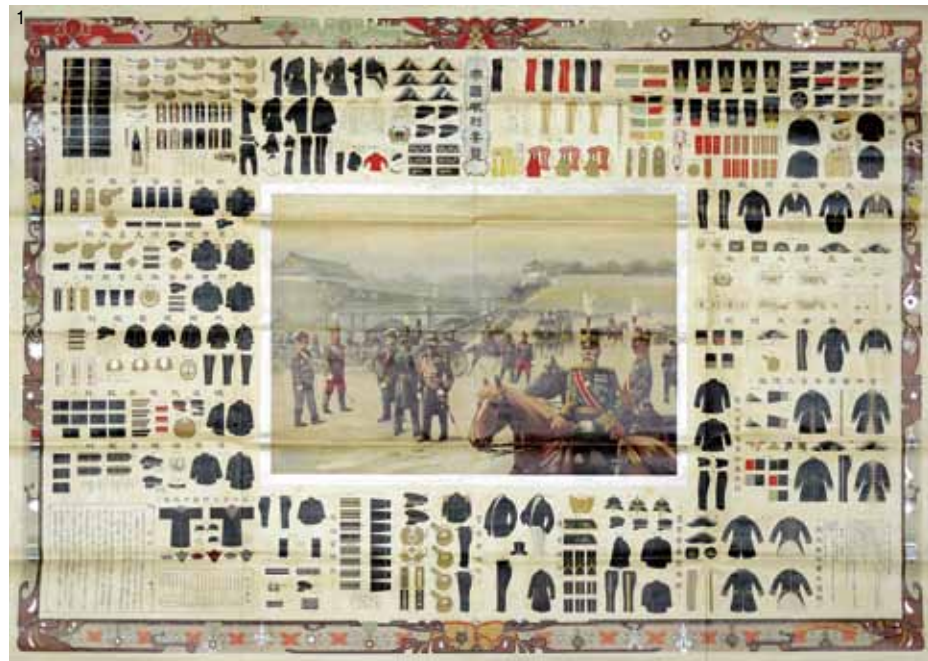
유물구입은 가치에 부합하는 합당한 금전적인 가치를 지불하고 유물을 입수하는 방법으로서 소장품을 확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매년 공개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을 통해 수집된 유물이 전체 소장유물의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증을 통한 유물수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연구, 전시 등의 활용을 위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합하는 수집행위는 아직은 유물구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많은 국공립 박물관에서는 공개구입을 통해 소장품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유물구입은 예산 책정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예산의 제약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유물구입은 구입대상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신청된 유물의 범위 내에서만 평가를 거쳐 유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신청된 유물이 대상으로서 부합되지 않거나 질적으로 떨어질 경우에 박물관의 계획과는 달리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 박물관에서는 유물 구입을 위해 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구입의 목적·기간·절차 등의 구입 조건을 설명한 공고를 낸다. 그리고 신용 있는 국내의 미술품의 유통 시장이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의 약관, 보증의 내용, 기간 등을 검토하여 유물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공개구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1 제국복제요람
- 2 조일양행 물감상표
- 3 인천화약공장 종이상자
- 4 목재 막걸리통
- 5 인천 이와모토(岩本) 사진관
- 6 조선풍속인형세트
- 7 미쯔비시 모자 및 컵



일반적으로 유물 매도를 위한 참가자격은 개인소장자(중증),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으로서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매도신청 할 수 없다. 매도신청자는 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매도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물 매도 신청자는 박물관에서 정한 유물 매도신청서, 유물명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이나 업종 등록증을 구비하여 신청한다. 매도신청 된 유물은 소장 목적의 합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박물관 실무 전문가를 통해 1차 구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차 평가를 거친 유물에 대해서는 실물을 접수하고 박물관 측에서 인수증을 발급한다. 실물 유물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와 가치 및 가격의 적정성을 유물평가심의회를 통해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구입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매도 신청자와 가격을 협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다.

어쨌든 유물구입은 수집과 전시, 연구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구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 그리고 구입대상에 부합하는 유물의 매도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2013년 유물구입은 특별전시 활용을 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총 2회로 진행하였다. 1회는 근현대 인천시사와 관련된 자료와 인천화교, 인천 전통시장 관련자료, 일본 이주사 자료를 구입하였고, 2회에서는 인천 배다리, 양조장, 조병창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하였다. 이외에도 인천의 근현대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점 구입하였다.

이렇게 구입된 유물은 2013년 총 621점으로 유물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수장고에 보존 관리, 연구 활용,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에도 유물 공개구입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바라는 바이다.



간판에도 역사가 있어요?

2기 청소년기자·전민제, 정현경, 임형진, 홍주희, 한승택

간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치킨 집 간판? 학원 간판? 옷집 간판? 아무래도 간판하면 음식점이나 학원 간판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조선시대의 간판은 이런 간판들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다른지 호기심 많은 저희 청소년 기자단이 인천을 돌아다니면서 간판의 변천사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간판을 ‘현판’으로 표현했는데요, 조선시대의 현판은 건물의 기능과 의미 등 건물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인 기원이나 건물의 이상적인 역할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의 현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도호부청사는 현재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건물의 일부만 보존되어 있고, 복원된 건물은 문학경기장 건너편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새롭게 조성된 도호부청사였는데요,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 소성관(昭誠館)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건물을 만났습니다. 객사라 불리는 건물로, 왕의 위패를 모시며, 도호부사가 정기적으로 예를 올리는 곳인데요, 이 건물과 현판은 새로이 복원된 것으로, 과거에 ‘소성관’이라는 현판이 붙어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천을 상징하는 ‘소성’과 객사를 상징하는 ‘관’이 들어가 있어 건물의 기능과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천향교를 찾았는데요, 인천향교에 들어가기 전에 명륜당이 라는 현판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향교의 학생들이 공부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명륜당의 ‘명륜’이란,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의미로 『맹자』 등문공편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



1 인천도호부청사 소성관



2 명륜당 3 서무(西廡) 4 동무(東廡) 5 대성전

고 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명륜당이라는 이름에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곳이라는 건물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인륜을 밝혀주길 바라는 선조들의 기원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륜당의 양쪽에는 동재(東齋), 서재(西齋)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들은 유생들이 기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재는 재계하다, 정진하다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서, 유생들이 머물면서 정진하는 곳이라는 건물의 역할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대성전(大成殿)이라는 현판이 걸린 큰 건물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공자와 안자, 증자, 자자, 맹자 등 4성(聖)의 위패가 모셔져있다고 합니다. 대성전의 ‘대성’은 공자를 이르는 말인 ‘대성지성문성왕(大成至聖文宣王)’의 앞 두 글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전(殿)’은 큰 집이나 대궐을 뜻하는 한자인데요, 공자가 모셔져있는 건물이므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는 의미로써 쓰였다고 합니다. 대성전의 양 옆에는 동무(東廡), 서무(西廡)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한국과 중국의 현인(賢人) 111인의 위패가 모셔져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廡)는 곁채를 의미하며, 건물의 역할과 특징이 함축돼있는 현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6 조선은행 7 인천우체국 8 조흥상회 9 등대경양식 10 일광당

한 간판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부터 간판은 하나의 건물에 수십 개씩 다닥다닥 붙게 되었습니다. 근대처럼 간판에 상호나 단체, 기업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내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네온사인까지도 사용하여 상업성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어디야?”, “나 ○○○야”, “저기가 어디데?”, “저기 ○○간판 보이지? 거기서 쪽 올라오면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 아닌가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찾을 때 그 장소의 정확한 주소보다는 그 주변의 간판을 통해 길을 찾고 간판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간판은 알림과 표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간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의미가 변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간판은 한 시대를 말해주는 역사적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간판을 통해 드러나는 시대의 생활상과 디자인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간판이지만, 한 번쯤은 간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호기심 많은 청소년 기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서부터 간판은 좀 더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역할이나 의미 등을 함축적으로 전달했던 과거의 간판과 달리 근대의 간판부터는 상호나 단체, 기업의 이름만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점차적으로 상업성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는 인천의 대표적인 개항장인 동인천의 건물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1899년에 석조로 개축된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건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문 위에 조선은행(朝鮮銀行)이라는 상호명이 새겨져있습니다. 이 은행이 1911년에 조선은행으로 개칭됐음을 생각하면, 무려 100년이나 지난 근대식 간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인천중동우체국’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우체국이라 불렀던 이 건물은 1923년에 지어진 건물로, 과거에는 건물 입구 상단에 인천우편국(仁川郵便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간판이 걸려있어서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동인천을 나와 배다리로 향하면 ‘조흥상회’라는 글자가 붙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흥상회는 5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건물에 붙어있는 ‘조흥상회’라는 글자는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과도기의 간판입니다. 공공건물이나 외국인 소유의 건물에만 상호명이 붙었던 근대 초기와 달리, 과도기에는 민간인 상가라면 어디든 상호명이 붙게 되었는데, 이 건물의 간판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살펴본 동인천의 ‘등대경양식’과 배다리의 ‘일광당’ 등의 간판은 산업화시대의 간판인데요, 문명의 발달로 전화번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색깔과 독특한 문체로 디자인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업성이 짙어지기 시작한 시기인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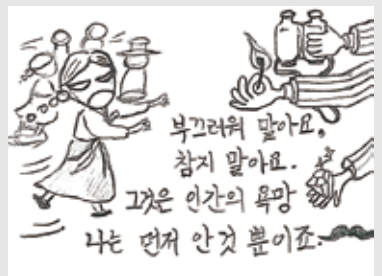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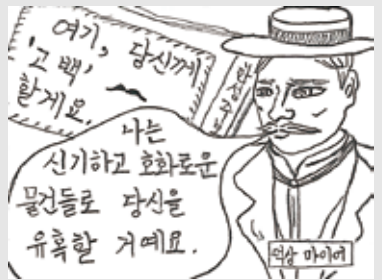
현대에는 집 밖으로만 나가도 무척이나 화려하고 다양한 간판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부터 간판은 하나의 건물에 수십 개씩 다닥다닥 붙게 되었습니다. 근대처럼 간판에 상호나 단체, 기업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내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네온사인까지도 사용하여 상업성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어디야?”, “나 ○○○야”, “저기가 어디데?”, “저기 ○○간판 보이지? 거기서 쪽 올라오면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 아닌가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찾을 때 그 장소의 정확한 주소보다는 그 주변의 간판을 통해 길을 찾고 간판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간판은 알림과 표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간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의미가 변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간판은 한 시대를 말해주는 역사적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간판을 통해 드러나는 시대의 생활상과 디자인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간판이지만, 한 번쯤은 간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호기심 많은 청소년 기자단이었습니다!

4Cut Cartoon

야미yami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부 조유미



기획특별전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

기간 : 2014년 4월 30일~7월 30일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작은전시 언젠가 보았던 날들

주제 : 문학작품과 유물을 통해 본 개항 후
인천항의 이면적 풍경
기간 : 2014년 4월 15일~8월 24일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작은전시실

성인답사 타박타박, 인천

주제 : 학예사와 함께하는 인천의 역사 · 문화길 탐방
일시 : 2014년 5~6월, 9~10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5시
장소 : 남구, 중구 일대
내용 : 5월 18일 - 이별고개 삼호현을 넘어
6월 15일 - 풍류의 거리, 화류향을 거닐다
대상 : 회당 20세 이상 성인 2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화가 있는 날

주제 :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연계 전시교육
일시 : 2014년 4~6월, 9~11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8시30분
장소 : 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우현마당
대상 : 일반시민 25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상설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주제 : 국악, 클래식, 팝페라, 재즈,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
일시 : 2014년 3~11월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4~5시
장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 일반시민 20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박물관대토소소, 토요일

주제 : 2명의 가족이 참여하는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학습
일시 : 2014년 4~7월, 9~12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세미나실, 3층 해남이방
대상 : 초등학교 동반가족 30팀 · 15팀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우리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제 : 온 가족이 꾸미는 아름다운 내 방
일시 : 2014년 1~12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장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남이방
대상 : 회당 가족 15팀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교육 상반기 제16기 박물관대학

주제 : 월미도 기획특별전 연계강좌
일시 : 2014년 5월 9일~6월 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 20세 이상 성인 14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교육 상반기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주제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일시 : 2014년 3월 18일~6월 24일
격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 20세 이상 성인 14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청소년진로 뮤지엄+드림캐쳐·드림하이

주제 : 전시기획 등 박물관의 다양한 업무를 체험
하고 진로계획 세우기
일시 : 2014년 4~7월, 9~12월
화~금요일 오후 2~4시
장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남이방
대상 : 인천시내 중·고등학교 한 학급, 동아리
신청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 공문 접수

어린이체험 가재 박물관으로

주제 : 교육과정 연계 박물관 체험활동
일시 : 2014년 4~7월, 9~12월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남이방
대상 : 인천시내 초등학교 한 학급
신청 :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어린이체험 상설체험교실

주제 : 도자기, 발굴, 민속놀이, 탁본, 청동기 등
8가지 상시 체험
일시 : 2014년 1~12월, 화~일요일
방학 · 주말 6회, 평일 3회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상설체험교실
대상 : 회당 초등학교 10명
신청 : 당일 안내데스크 접수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4월	민속놀이	청동기	전통인쇄	도자기	발굴
5월	발굴	탁본	고건축	민화	민속놀이
6월	청동기	전통인쇄	도자기	발굴	탁본

유아체험 꼬꼬마, 가재 박물관으로

주제 : 상설전시 연계 박물관 체험활동
일시 : 2014년 4~7월, 9~11월
목요일 오전 10~11시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세미나실
대상 : 인천시내 유아단체 회당 40명 이내
신청 : 담당자와 사전협의

※ 지난 소식지 20호 (2013년 겨울호)
"인천의 전통시장 - 중앙시장, 송현자유시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시장 마을협동조합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탄생하였으며,
탄생 과정 중 인천시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분관소식

송암미술관

호야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민화 이야기

주제 : 민화를 통해 만나는 옛 사람들의 소망과 상상
기간 : 2013년 10월 15일~2014년 6월 1일
장소 : 송암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6782

제2기 송암예술아카데미

주제 : 한국의 멋, 미술에 반하다
일시 : 2014년 4월 2일~5월 21일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장소 : 송암미술관 강당
대상 : 일반시민 60명
신청 : 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화 선착순 접수
문의 : 032-440-6782

꿈을 그리는 미술관

주제 : 유물관리, 보존처리, 전시기획과 연계한
학예연구사 진로 체험 교육
일시 : 2014년 학기 중 상시
장소 :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 초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단체 회당 20명 내외
신청 :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문의 : 032-440-6782

알!송!달!송! 미술관

주제 : 유물감상법, 십이지, 사군자와 연계한 이론,
전시실 교육 및 체험실습
일시 : 2014년 학기 중 상시
장소 :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 초등학교 단체 회당 1학급
신청 :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문의 : 032-440-6782

검단선사박물관

가족체험프로그램

주제 : "쿠키 속 달콤한 유물 이야기"
일시 : 2014년 3~6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하늘정원 또는 아동도서관
대상 : 6세~초등학교 자녀를 동반한 5가족 (20명) 이내
신청 : 인터넷 선착순 접수
내용 : 쿠키 클레이를 이용한 선사시대 유물 쿠키 만들기
비용 : 무료(재료비 5,000원)
문의 : 032-440-6790, 6796~7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주제 : 진로체험교육 "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일시 : 2014년 4~6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2~4시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대상 : 중 · 고등학생
신청 : 전화 접수
내용 : 박물관의 정의와 역사 및 학예연구사 직업체험
비용 : 무료
문의 : 032-440-6796~7

가족답사프로그램

주제 : '떠나요! 고고학 탐험대'
일시 : 2014년 4~6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4시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및 발굴현장(수도권 내)
대상 : 초등~중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40명(15가족 내외)
신청 : 인터넷 선착순 접수
내용 : 발굴현장 답사 및 선사박물관 관람을 통해
유물의 발굴부터 수습, 전시과정 이해
비용 : 무료 (단, 중식 및 필기구 개별지참)
문의 : 032-440-6790, 6796~7

한국이민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강연

주제 : 한민족 디아스포라 강연
일시 : 4월 30일, 5월28일, 6월25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
내용 : 해외로의 한인이주사 특강 (노령, 간도, 일본)
대상 : 일반시민 50명
신청 : 전화 (032-440-4710) 또는 홈페이지 접수
문의 : 032-440-4710

청소년 인천 역사기행

주제 : 무한답사 포와(하와이) 가는 길
일시 : 4월 19일, 5월17일, 5월24일, 6월 14일,
6월21일 9시30분~2시30분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
내용 : 인천 개항장 일대 답사
(축현역터- 내리교회-동서개방- 감리서
-대실러 사택-대불호텔- 우선주식-해관
-잔교- 박물관)
대상 : 각 회수별 고교생 20명
신청 : 홈페이지 접수
문의 : 032-440-4709

컴팩스마트시티

상반기 인문학강좌 '현대미술 읽기'

주제 : 예술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현대미술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는 강의
강사 : 조이한(인하대 강사)
일시 : 2014년 4월 3일 / 10일 / 17일 / 24일
(총 4회) 4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대상 : 회당 일반시민 100명(무료)
신청 : 전화 850-6016
이메일 cscity@naver.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
/compactsmarcity
트위터 @compact6018

일 정	강의주제
4/3(목)	1강 예술가란 무엇인가?
4/10(목)	2강 눈의 순수함
4/17(목)	3강 정신의 순수함
4/24(목)	4강 순수함을 벗어던지고

토요영화감상회

주제 : 시민들의 영화예술 향유를 위해
매월 첫째주-다양성영화, 둘째주-고전영화,
셋째주-도시영화, 넷째주-애니메이션,
다섯째주-환경영화 상영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대상 : 회당 일반시민 100명
(관람등급에 따라 연령 제한 있음)
관람 : 선착순 100명(무료)

일 정	4월~5월 상영영화
4/5(토)	안녕?오케스트라
4/12(토)	시네마천국
4/19(토)	원스
4/26(토)	슈렉포에버
5/3(토)	Mr. 후아유
5/10(토)	인생은 아름다워
5/17(토)	도쿄타워
5/24(토)	잠베지아: 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5/31(토)	에린 브로코비치



세창양행 상표(世昌洋行 商標)

글·안성희 (전시교육부)

소장유물

19세기 말 ~ 20세기 초, 가로 14.2cm, 세로 6.0cm

전시위치: 역사2실

여기 빛바랜 한 장의 작은 종잇조각이 있다. 전통혼례 장면을 중심으로 양옆에 ‘世昌洋行’, ‘INDIGO BLUE’를 대칭적으로 구성, 칼라 인쇄한 것이다. 세창양행에서 판매한 짙은 청색 염료 혹은 물감의 포장재 상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창양행은 독일인 기업가 마이어(H. C. Edward Meyer, 1841~1926)가 설립한 마이어상사의 인천 제물포 지부로서, 취급했던 상품 가운데 염료 외에도 금계랍, 바늘 등이 인기가 높았다.

1886년 2월 22일, 『한성주보』4호에는 매우 흥미로운 헤드라인이 실렸다. ‘덕상 세창양행 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 한국 최초의 근대적 광고로 평가되는 ‘고백’에는 세창양행이 조선으로 들어온 온갖 물건이 줄줄이 등장한다. 특히 의생활과 관련 깊은 ‘서양단추, 각색 서양직물, 서양천을 비롯해 염색한 옷과 선명한 염료, 서양바늘, 서양실’ 등의 상품 소개가 아주 구체적이다. 다른 초기 신문 광고에서도 외국 의염색약 제조법 광고나 옷감 상점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여, 당시 조선 사람의 의식주 양식을 바꾼 많은 박래품(舶來品) 중 의복과 염료, 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유통되었음이 짐작된다. 이렇게 유입된 것들은 대량생산된 공산품에 불과했지만 당시 ‘양품(洋品)’이자 ‘양품(良品)’으로 인식되고 소비되었다.

세창양행 상표 디자인에서도 이 같은 신문물의 이미지는 계속된다. 마치 이 상표가 붙은 염료로 염색한 천만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적색, 홍색의 혼례복을 입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또한 전통혼례는 19~20세기 한창 제작, 유포되었던 사진엽서나 외국인 화가의 그림에서도 인기 있었던 조선풍속 소재이다. 분명 염료라는 상품 정체성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알리는 동시에 개항기 외국계 회사의 상품 이미지로 조선인에게 친숙함을, 외국인에게는 이국취향을 만족시킬만한 메시지 전달이라 하겠다. 노란색, 빨간색, 녹색의 세 가지 색 조합은 화사할 뿐 아니라 눈에도 잘 띄어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를 선명히 각인시킨다.

이미지의 내용과 함께 문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자 세창양행과 영어 인디고블루는 마치 한글의 명조와 고딕체열의 서체처럼 대칭적으로 표현되었다. 동양의 서예전통에 19세기 서양에서 등장한 (한글로 치면) 고딕체열의 직선적 서체가 함께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世昌) 마크를 동양 화에서 불법한 낙관처럼 인쇄한 점도 옛 시대의 전통과 모더니티가 결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근대적 일상과 풍속 속으로 불어온 바람이 하잘 것 없는 종이 포장지에 인쇄된 상표를 통해서도 보이는 듯하다.